

尚有十二精神

이 봉 훈

세상살이 말도 많고 곡절도 많은 것이다. 작고 큰 난관이 도처에서 때 맞추어 부딪혀 온다. 이러한 난관에 굽히지 않는 참나무' 썩이같은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어려움이란 절망하고 체념하고 이맛실을 찌푸리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극난(極難)에 처해 있을수록 타개의 실마리를 다각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온당한 방법을 택해야 하겠지만 때로는 자기 힘에 벅차는 무모하고 무리한 방법 일지라도 서슴치 않고 행해야 할 때도 있다. 어차피 졸도(卒倒)할바엔 강으로 버틴다는 실정으로…… 물론 이러한 해결책은 지양(止揚)되어야 할 것이며 난관에 부딪히지 않도록 세심(細心)한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겠지만 격변(激變)하는 세상과 세태(世態)에 자기도 모르게 곧잘 혼탁한 와중(渦中)에 휩쓸려 버림은 어쩔수 없는 세상살이의 가까운 일면일 수도 있다.

우리 축산인은 일의 처리에 너무나 소극적인 면이 많다. 극단적인 표현같지만 우유부단(優柔不斷)하고 뜻대가 없는 많은 출신인(거의가 양계인)이 있다. 뚜렷한 신념과 확고한 설정이 없는 계획부재(計劃不在)의 현상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사람 저사람의 말에 혹하고 값싼 것에 부동(浮動)하는 경향이 있다. 호느적거리는 가을의 갈매가 한껏 비웃을 정도로…… 두손을 굳세게 모아쥐고 싹싹 비노니 이러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사례는 언제그렸느냐 하고 한참 생각할 정도로 속히 없어져야 하겠다.

불세출(不世出)의 영웅 나폴레옹(Napoleon)이라는 호감이(好感)가 가는 양반이 전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란 여러사람이 하는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사람이 하는 커다란 도박이다”라고 이말의 뜻을 곰곰히 생각하면 크게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우리양계 업계에 가장 적절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양계인들에 비유하여 이러한 말을 생각해 보았다.

양계란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사람이 하는 중대한 일이다”라고…… 전쟁과 양계를 비유함이 가당찮은 것 같지만 양계를 하는것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무기이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 생각한다면 Broiler 후기 사료의 옥수수 배합비가 50% 정도인 것 보다는 훨씬 틀린것이 아니라 생각된다.

양계는 발자국 수에 성패가 비례한다. 좀더 열심히, 눈방울을 소주잔만큼 크게 뜨고 열심히 모른 것을 점검하며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군(大群)업자(산란계 10,000首以上)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세심한 주의와 판단과 통찰이 필요할 것이며 소군(小群)업자(산란계 1,000首以下)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즉 병력이 적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병력의 증강(增強)을 위하여 비장한 각오로 모든일에 소탈한 차질도 없는 알뜰한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돼지털은 좀 두껍고 기니까) 구국(救國)의 명장(名將)이신 이순신장군의 처절하고 애처로운 상소문. 나라의 주관과 국민의 정신이

근저(根底)에서부터 흔들려 버렸던 시대, 나아갈 좌표(座標)를 상실(喪失)하고 급변하는 세계사(世界史)의 조류(潮流)에 발맞추지 못하고 비틀거리던 시대, 집안 싸움으로 밤새우고, 닭우는 소리 듣지 못하고, 등잔불의 심지를 돋우고 코밀이 시커멓게 꼬일리며 유모를 일삼던 시대, 탐관오리(貪官汚吏)의 부정과 부패가 난숙의 극에 달했던 시대(서정쇄신(庶政刷新)이라는 녀자가 없었음)에 홀연히 대쪽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비장하디 비장한 각오로 수염길고 꺼칠한, 향약한 나랏님께 올린 글월 :

今臣戰船尙有十二
出死力拒戰則 猶可爲也(中略)
戰船雖寡 微臣不死則
賊不敢侮我矣

위와 같은 조그마한 양계장 일지언정 알뜰히 보살펴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참으로 비장하고 그 이상의 용기 있는 말씀이 이세상에 또 있을까?

수백척의 적선(敵船)이 물러온다는데 다 털어빠진 보잘것 없는 열두척의 배를 가지고, “지금 신(臣)에게는 「아직도」 열두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도도하기 이를데 없는 말씀 거기이다, “죽을힘을 다하여 나아가 싸운다면 안될게 있겠습니까?”

하고 한심무비(無比)할 정도로 숫자에 둔감(?) 하였던 장군. 아마 「아직도」 열두척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털어빠진 배라도 남아있다는데에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이 아닐까?

“전선(戰船)은 비록 적다 하나 미약하나마 제가 죽지 않는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엽신 여기지 못할것입니다.”

하신 말씀은 현대에 사는 소인(小人)를 모두가 마음에 새기며 음미(吟味)해야 한다.

지나친 과신(過信)과 자만(自慢)은 미스 코리아에 나갈 「잘못된 여자」의 얼굴에 주먹만 한 여드름처럼 문제가 되겠지만 장군님의 말씀은 오로지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싸움에 임하겠다는 숭고한

마음이기 때문에 더욱 가슴을 여미게 한다.

그러나 장군은 오직 나라를 목숨보다 더 위한 충신이고 다만 구국(救國)의 명장(名將)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장군에 대해 더할 수 없는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지만 위대(偉大)한 분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만약 장군이 나라를 지키고 나아가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여 정복하게 했다면 어떠할까? 나는 아마 이세상에서 다시없는 영웅으로 생각하고 존경할 것이다.

영웅이란 조그마한 자기나라를 죽음으로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살아야 겠다고, 그래서 먹어야 한다고 비린내나는 생개구리를 썩어 삼키며 온갖 수난과 파란끝에 아시아(Asia)와 유럽(Europe)을 말발굽으로 집밟았던 징기스칸같은 사람이 영웅이 아닐까?

가난한 평민의 자식으로, 일개 포병장교로써 프랑스(France)를 지배하고 전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나폴레옹은 더우기 말년에는 「센트·헤레나」의 천애의 외딴섬에서 재기(再起)하려고 몸부림치던 풍운아라면 영웅이란 칭호가 어울리지 않을까?

커다랗고 묵직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버린 우리가 되새김해야 할 너무나 많은 훌륭한 교훈들이 있지만 언제나 생생히 기억되는 것이란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유독 이 순신장군이 하신 말씀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음은 그러한 정신과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하든가? 축산업의 안정시대가 흐릿하게나마 도래(到來)하는가 했더니 숨을 할딱이던 사료가격이 덜컥인상되었다. 제발 난가(卵價)가 하늘을 찌를듯이 올라 간다면 축산에 운명을 걸어버린 슬프고 억울한 나같은 축산학도의 마음이 뿌듯할텐데…… 원곡 옥수수 사정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수입에 기대는 형편이니 그쪽 사정에 도리없이 덩달아서 어깨춤을 추어야 한다. 시세(時勢)의 변함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소홀히 생각하거나 가볍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보다 나은 설계를 가지고 먼앞로의 길은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